

국내 언론의 장애 관련 보도 현황 및 표현법의 문제*

- 10대 중앙 일간지 모니터링 결과를 중심으로 -

윤 삼 호**

1. 문제 의식

2000년 이후 폭발한 장애운동의 결과로 한국 장애인들은 이동권, 접근권, 참정권, 문화향유권 등 장애인으로서 또 시민으로서 정당하게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를 하나씩 확보하고 있다. 특히,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되면서 장애인은 ‘법적으로는’ 다른 사람과 동등한 권리의 주체이자 시민의 한 사람으로 인정되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여전히 장애인 차별의 영역이 존재하고 있으며, 특히 주류 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물리적, 제도적 환경의 변화 속도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장애인의 ‘기능적’ 사회통합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었음에도 아직도 ‘실질적’ 통합으로 가는 길에는 장애물이 많다. 그 가운데 하나가 언론이 장애(인)을 대하는 태도이다.

언론의 중요성은 새삼 재론할 필요가 없다. 그동안 장애인 사회는 언론사에 장애 관련 보도 태도, 특히 용어 사용에 대한 문제를 여러 차례 제기했다. 또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정보문화누리 등 장애인단체들은 언론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그 결과, 장애인을 노골적으로 비하하는 용어들 - 가령, 불구자, 병신, 폐질자, 정신박약자, 백치 - 이 많이 줄고 장애인을 긍정적으로 보도하는 기사가 늘고 있다. 그렇지만 아직도 한국 언론은 주로 ‘의료모형(medical model)’ 또는 ‘개인모형(individual model)’¹⁾에 근거하여 장애를 묘사한다. 장애를 치료, 재활, 극복의 대상으로 보고 장애인의 문제를 사회의 문제가 아닌 개인의 문제로

* 투고일자 : 2014. 5. 30 심사일자 : 2014. 6. 18 게재확정일자 : 2014. 6. 23

**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정책위원

1) 마이크 올리버(1990년), 윤삼호 역, 장애화의 정치, DPI출판부.

바라본다는 말이다. 그러다보니 장애와 장애인을 있는 그대로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실재보다 과장하거나 반대로 과소평가하여 보도하는 경우가 많다.

언론이 시민들의 인식 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장애인의 시각으로 언론을 정기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모니터하고 그 결과를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II. 조사 목적

<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를 보면, 우리나라 장애인 가구 중 79.7%와 비장애인 가구의 76.0%는 장애인 차별이 존재한다고 응답했다.²⁾ 또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조사에 따르면, 일반인들은 장애 문제 해결하기 위해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버려야 한다’는 의견이 53.8%로 나타나 ‘정부에서 장애인을 위한 복지정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46.0%)는 의견보다 많았다.³⁾

이처럼 장애인 차별이 만연한 사회에서는 언론의 역할이 특히 중요하다. 일반 시민들은 장애(인)에 대한 정보를 직접 체험을 통해서가 아니라 주로 언론을 통해 간접 전달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언론이 장애를 어떤 관점에서 보도하느냐에 따라 시민사회의 장애인 인식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언론은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은커녕 오히려 편견과 고정관념을 조장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실제 언론에서 보도된 장애인 관련 기사내용을 살펴보면 장애인에 대한 동정적인 인식과 편견을 가중시키고, 장애인이 안고 있는 문제를 개인적인 문제로 한정지어 문제 해결에 결정적인 도움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소수의 유명한 장애인에게만 관심을 기울여 대다수의 장애인을 소외시키고 있다.”⁴⁾

이 글은 중앙 일간지에 보도된 장애 관련 기사를 모니터한 결과를 토대로 언론사별로 장애인 관련 보도 형태를 비교 분석하고 기사의 관점과 표현법을 분석한다. 물론, 이 같은 분석의 목적은 언론의 장애 관련 보도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최종적으로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태도와 시선을 긍정적으로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이 글은

2) 김성희 외(2012),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3) 한국갤럽(2001), 한국장애인과 일반인의 의식, 서울문화사.

4) 이수성 외(2008), 2008언론모니터보고서 : 공공저널리즘과 장애인,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와 필자가 2013년에 공동으로 수행한 10대 중앙 일간지 장애인 관련 보도 모니터링 결과를 원자료로 삼아 분석한 것이다.)

III. 선행 연구 및 조사 검토

김성수는 중앙 일간지 6곳의 장애인 관련 기사를 통해 장애인 문제와 대중매체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⁵⁾ 분석 결과, 우리나라 신문들은 지체장애(41.1%)와 시각장애(23.9%) 등 특정 장애 유형에 치중되어 보도하는 경향이 강하며, 그 특정 장애조차 기사 유형이 한정되어 있어 국민들이 장애의 다양성을 인식하기 어렵고 장애에 대한 편협한 시각 및 고정관념을 갖게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2008년에 <장애인인권방송지표가이드북>을 발간하였다. 이 가이드북은 장애인 관련 보도의 3대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사람보다 장애를 강조해서는 안 된다. 둘째 장애인을 동정과 보호의 대상으로 묘사해서는 안 된다. 셋째 부정적 이미지와 잘못된 용어를 사용하여 장애인을 비하하거나 인격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이런 원칙을 깨뜨리는 잘못된 용어와 표현들이 뉴스 보도에 관행적으로 등장하고 있다고 가이드북은 지적한다.⁶⁾

그리고 민주언론시민연합은 기존의 법령 및 규정들과 해외 사례들을 참고하여, 다음과 같은 장애인 관련 보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첫째, 제도적 접근 없는 인물 위주, 미담 위주의 기사를 지양해야 한다. 둘째, 장애인을 대상화하여 관공서나 기업의 홍보에 치중하는 보도를 삼가야 한다. 셋째, 잘못된 용어와 속담 및 관용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이런 식의 묘사가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고착화 할 수 있으므로 언론들이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⁷⁾

외국에서는 1960년대 후반부터 대중 매체의 장애차별적 표현 및 묘사를 문제 삼기 시작하였다. 그 중 가장 중요한 사람은 폴 헌트(Paul Hunt)다. 헌트는 1960년대 새롭게 등장한 대중매체인 TV에서 묘사되는 장애인 이미지에 대한 비판적인 주장을 제기하였

5) 김성수(2002), 주요 중앙일간지의 장애인 관련 기사 보도 경향 분석,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6) 김성제(2008), 2008 장애인인권방송지표가이드북,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7) 김언경(2007), 민언련 장애인 관련 신문 방송모니터 기준, 장애우문화센터.

고, “우리는 통계의 대상, 사례의 대상, 이 세상에서 아주 경이로운 존재, 모금을 재촉하기 위한 불쌍한 대상이 되는데 지긋지긋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TV의 장애인 묘사에 대한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하였다.⁸⁾ 영국 장애학자 콜린 반즈는 힌트의 주장을 더욱 발전시켜 오늘날 대중 매체가 장애인을 묘사할 때 흔히 범하게 되는 주요 문제 10가지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1. 장애인을 동정 및 연민의 대상으로 묘사한다. 2. 장애인을 폭력의 대상으로 묘사한다. 3. 장애인을 최악의 대상 또는 악인으로 묘사한다. 4. 특정한 분위기 또는 호기심을 자아내기 위한 도구로 활용된다. 5. 장애인을 ‘슈퍼 병신(super cripple)’으로 묘사된다. 6. 장애인을 조롱의 대상으로 묘사한다. 7. 장애를 장애인의 최대 적으로 묘사한다. 8. 장애인을 사회적 부담으로 묘사한다. 9. 장애인은 성적으로 비정상적인 존재로 묘사한다. 10. 장애인은 이 사회에 완전히 참여할 수 없는 존재로 묘사한다. 반즈는 이렇게 왜곡된 장애인 묘사를 바로잡기 위해 무엇보다 장애 경험과 장애인 정체성의 복잡성을 인식하고, 모든 장애인들을 주류 경제와 지역사회 생활에 통합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⁹⁾

IV. 조사 개요

1. 조사 시기 및 방법

중앙 일간지의 장애인 보도 형태 및 표현법에 관한 모니터링은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되었다.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와 장애인들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원들이 도서관 등지에서 활자화된 중앙 일간지에 보도된 장애 관련 기사들을 직접 스크랩하는 방식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하였다.

2. 조사 대상 신문

이번 조사에 대상이 된 중앙 일간지는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한국일보, 서울신문, 국민일보, 세계일보, 문화일보 등 10대 일간지다. 조사 대상 보도 시기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 동안 (장애인의 날이 포함되어 있어서 장애 관련 기사의 양과 질 그리고 다양함이 가장 풍부한) 4월에 보도된 기사에 국한하였다.

8) HUNT, P.(1966) Stigma: The Experience of Disability, London, Geoffrey Chapman.

9) Barnes, C.(1992), Disabling Imagery and the Media, Ryburn Book Production, Halifax, England.

3. 조사 대상 기사의 기준 및 범위

모니터링의 대상이 된 장애 관련 기사의 기준과 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복지법이 인정하는 15가지 유형의 장애인뿐 아니라 국내에서는 장애로 인정하지 않지만 주요 국가들이 대체로 장애로 인정하는 치매, 에이즈를 모니터링에 포함시켰다. 둘째, 데이터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면 기사는 모니터링에서 제외하였다. 셋째, 장애 관련 기사라고 하더라도 평가할만한 가치가 없는 단신 기사는 모니터링에서 제외하였다.

V. 언론사의 장애인 관련 보도 형태

10대 중앙 일간지의 장애인 관련 보도 형태를 기사의 양, 보도 지면, 주로 다루는 장애 유형, 기사의 내용 측면에서 비교 분석하였다.

1. 보도된 기사의 양 비교

10대 일간지가 지난 3년 동안 4월에 장애 관련 기사를 보도한 건수를 연도별로 분석할 결과, <표 1>에서 보듯이 서울신문(62건), 문화일보(57건), 국민일보(56건) 순으로 많았다. 그 뒤를 이어 중앙일보(51건), 조선일보(45건), 한국일보(41건), 한겨레신문(41건), 동아일보(40건) 순이었고 세계일보(39건)와 경향신문(33건)은 40건 미만이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판매부수와 지면의 양이 적고 정치 색채가 다소 보수적인 서울신문, 문화일보, 국민일보가 장애 관련 보도 양이 많다. 그리고 판매부수와 지면의 양이 가장 많고 정치적으로 보수 색채가 짙은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의 보도 양이 중간 정도를 차지했다. 반면, 지면의 양이 적고 정치적으로 진보 색채가 짙은 경향신문의 보도 양이 가장 적고 한겨레신문의 보도 양도 중간 이하다. 따라서 장애 관련 기사의 보도 양은 신문의 발행 부수, 지면의 양, 정치적 색채와는 무관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10대 일간지가 지난 3년 동안 보도한 기사의 양을 모두 합치면 466건이다. 이를 연도별로 보면 2011년 176건, 2012년 149건, 2013년 140건이다. 이처럼 해가 갈수록 보도 양이 줄어드는 이유를 정확하게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다만, 한국 장애운동의 전

반적인 퇴조기에 접어들었고, 따라서 장애 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쟁점으로 부상하지 못하는 최근의 흐름을 반영하는 것이 아닌지 추정을 할 따름이다. 앞으로도 이런 추이가 계속 될 것인지 여부는 지금으로서는 판단할 수 없고 향후 추가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해 보인다.

<표 1> 연도별/연도별 기사 양 비교

(단위 : 건)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계
경향	17	5	11	33
국민	21	20	15	56
동아	13	12	15	40
문화	21	17	19	57
서울	23	22	17	62
세계	15	16	8	39
조선	19	11	15	45
중앙	12	23	16	51
한겨레	20	7	14	41
한국	15	16	10	41
계	176	149	140	465

2. 보도 지면 비교

우리나라 신문이 장애인의 어떤 측면에 주로 관심을 가지는지 살펴보았다. <표 2>에서 보듯이 10대 일간지는 조사 대상 시기에 보도한 전체 기사 465건 가운데 사회면에 146건(31.4%), 인물면에 85건(18.3%), 특집 및 기획면에 50건(10.8%) 그리고 여론 및 칼럼면에 49건(10.5%)이 실렸다. 사회면과 화제의 인물을 소개하는 인물면에 전체 기사의 절반이 집중되어 있는 셈이다. 이어서 종합면 23건, 섹션면 23건, 기타면 21건, 스포츠면 14건, 1면 13건, 만평/사설면 11건, 건강면 9건 순이었다. 반면, 정치면(3건), 국제면(5건), 경제면(7건), 문화면(7건) 기사의 양은 아주 저조했다.

신문사별로 지면 집중도를 살펴보면, 세계일보(69.2), 서울신문(61.3%), 조선일보(60.0%), 동아일보(57.5%), 한국일보(51.2%) 등 5개 신문의 사회면과 인물면 기사가 전체 기사 양의 절반이 넘어 보도 다양성이 낮다. 반면, 중앙일보(27.5%), 문화일보(36.5), 국민일보(39.3%), 경향신문(39.4%), 한겨레신문(48.8%) 등의 사회면과 인물면 기사 비중은 절반 이하여서 상대적으로 기사 다양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표 2> 언론사별/연도별 보도지면 비교

(단위 : 건)

구 분	경향	국민	동아	문화	서울	세계	조선	중앙	한겨레	한국	계
1면	1	2	0	0	3	2	2	1	1	1	13
종합	0	2	1	2	4	1	3	2	6	4	25
특집/기획	4	6	0	21	3	4	0	7	1	4	50
정치	1	0	0	0	1	0	0	1	0	0	3
사회	7	12	18	13	23	21	17	6	15	11	143
경제	2	0	0	3	0	0	0	0	1	1	7
국제	0	0	0	1	2	1	0	0	0	1	5
스포츠	1	0	2	1	1	1	3	1	3	1	14
문화	1	0	0	1	0	0	1	0	1	3	7
인물	6	10	7	8	15	6	10	8	5	10	85
건강	2	2	0	1	4	0	0	0	0	0	9
여론/칼럼	5	7	5	4	3	1	4	9	7	4	49
만평/사설	2	3	0	1	2	2	0	1	0	0	11
섹션	0	0	5	0	0	0	3	15	0	0	23
기타	1	12	2	1	1	0	2	0	1	1	21
계	33	56	40	57	62	39	45	51	41	41	465

3. 기사가 다루는 장애 유형 비교

10대 일간지에 보도된 기사들이 주로 어떤 유형의 장애를 다루는지 살펴보았다. <표 3>에서 보듯이 특정한 유형의 장애에 초점을 맞춘 기사는 모두 314건(67.5%)이고 포괄적인 장애에 초점을 맞추어서 ‘기타’로 분류된 기사는 151건(32.5)이다. ‘기타’를 제외하고 장애 유형을 특정할 수 있는 기사 314건을 장애 유형별로 분류하면, 지체장애 115건(36.6%), 발달장애 62건(19.7%), 시각장애 49건(15.6%), 정신장애 35건(11.1%), 청각언어장애 22건(7.0%), 뇌병변장애 21건(6.7%), 심장장애 5건(1.6%), 안면장애 2건(0.6%), 신장장애 2건(0.6%), 간장애 1건(0.3%)이고 호흡기장애, 장루요루장애, 간질장애는 단 한 건도 없었다. 한편,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가 추정한 한국의 장애인수 2,683,477명을 장애 유형별로 세분하면 지체장애인 1,338,554명(49.9%), 뇌병변장애인 333,798명(12.4%),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 303,155명(11.3%), 시각장애인 259,986명(9.7%), 지적장애인과 자폐성 장애인 193,026명(7.2%), 정신장애인 115,151명(4.3%) 순이다. 따라서 발달장애, 시각장애, 정신장애는 실제 인구비율보다 더 많이 보도되는 반면 뇌병변장애, 청각언어장애, 지체장애는 실제 인구비율보다 더 적게 보도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신장장애, 심장장애, 간장애, 호흡기장애, 장루·요루장애, 간질장애 같은 ‘신체내 부장애’와 안면장애에 대해서는 우리 언론들이 거의 관심이 없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7가지 장애 유형을 다룬 기사는 모두 합쳐야 전체 465건 중 10건(2.2%)에 불과하다. 신체내부장애인들의 경우 장기이식과 기증자 지원 문제가 현안이 되고 있고, 안면장애인들의 경우 사회적 낙인과 성형수술비용 문제가 오래 전부터 사회 문제가 되고 있지만 10대 신문들은 이런 문제를 외면했다. 특히, 호흡기장애, 장루·요루장애, 간질장애에 관한 보도는 전무한 상태여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조사 결과를 통해 볼 때, 10대 일간지는 비가시적 장애보다는 가시적 장애에 초점을 맞춘다고 추정해볼 수 있다. 가령, 신문들은 청각장애보다는 시각장애에, 그리고 신체내부장애보다는 신체외부장애를 보도하는 비율이 더 높다. 이를 통해 우리는 방송 뿐만 아니라 신문도 이른바 ‘그림이 좋은’ 또는 ‘섹시한’ 장애 유형에 대한 보도를 상대적으로 더 선호한다고 볼 수 있다.

<표 3> 언론사별/연도별 기사가 다루는 장애 유형

(단위 : 건)

구 분	경향	국민	동아	문화	서울	세계	조선	중앙	한겨레	한국	계
지체	11	10	12	8	16	9	12	14	12	11	115
뇌병변	3	3	1	1	2	3	2	2	3	1	21
시각	3	3	4	7	4	4	8	6	4	6	49
청각/언어	3	3	3	4	1	3	2	0	2	1	22
안면	0	0	0	0	0	0	1	1	0	0	2
신장	0	0	0	0	1	0	1	0	0	0	2
심장	0	0	2	0	2	0	0	1	0	0	5
간	0	0	0	0	1	0	0	0	0	0	1
호흡기	0	0	0	0	0	0	0	0	0	0	0
장루/요루	0	0	0	0	0	0	0	0	0	0	0
간질	0	0	0	0	0	0	0	0	0	0	0
발달	3	11	3	6	7	7	6	7	7	5	62
정신	2	1	1	1	11	3	1	8	5	2	35
기타	8	24	14	30	17	10	12	12	8	16	151
계	33	55	40	57	62	39	45	51	41	42	465

4. 기사의 내용 비교

10대 신문이 장애인의 삶 중 어떤 측면에 관심을 가지는지 살펴보았다. <표 4>에서 보듯이 10대 신문들은 노동/취업 74건(15.9%), 인물/인터뷰 71건(15.3%), 의료/재활 68건(14.6%) 분야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진다. 이어서 자선/봉사 44건(9.4%), 인권 42건(9.0%), 문화/예술 31건(6.7%), 교육 28건(6.0%), 접근성/편의 28건(6.0%), 스포츠 26건(5.6%), 서비스 22건(4.7%), 기타 18건(3.9%) 순으로 관심을 많이 가진다. 반면, 장애인의 정치와 소득/생계에 관한 기사는 각각 7건(1.5%) 6건(1.3%)이 보도되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언론은 장애인의 노동과 취업, 의료와 재활, ‘성공한’ 또는 ‘특별한’ 장애인의 사연에 많은 관심을 가지는 반면, 장애인의 정치적 삶과 생존권의 문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장애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2000년대 초중반의 ‘인권’과 ‘권리’ 모형에서 점차 ‘생산적 복지’와 ‘의료’ 모형으로 이동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또 우리나라 신문들은 장애인의 삶의 영역이 다양함에도 주로 사회면 장애 관련 기사를 식는 경향이 짙다. 이는 장애의 문제를 사회적 쟁점으로 획일화하는 것이며, 따라서 장애 쟁점의 다양성과 장애인의 삶의 보편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비장애인과 관련된 기사에서는 이런 식으로 기사의 형식과 내용이 불일치하는 보도 경향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를 통해 우리는 우리 사회가 여전히 장애 쟁점을 사회적으로 ‘특수한’ 문제로 바라본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 신문사별/연도별 기사 내용 분류

(단위 : 건)

구 분	경향	국민	동아	문화	서울	세계	조선	중앙	한겨레	한국	계
노동/취업	4	9	6	15	13	6	4	7	4	6	74
교육	2	3	2	3	7	1	5	4	0	1	28
접근성/편의	0	0	3	4	4	4	2	3	6	2	28
스포츠	2	2	2	3	1	3	6	2	3	2	26
문화/예술	2	4	3	8	2	3	5	2	1	1	31
의료/재활	5	4	6	2	16	3	6	14	7	5	68
소득/생계	1	1	0	0	0	0	0	0	3	1	6
서비스	3	5	2	2	5	1	0	1	1	2	22
정치	3	1	0	0	2	0	0	0	0	1	7
인권	1	7	2	7	3	7	3	2	7	3	42
인물/인터뷰	4	10	6	8	5	7	8	7	4	12	71
자선/봉사	5	7	5	4	2	3	2	7	4	5	44
기타	1	2	3	1	2	1	4	2	1	1	18
계	33	55	40	57	62	39	45	51	41	42	465

VI. 신문에 보도된 왜곡된 표현들

10대 중앙 일간지들이 보도한 기사들 중 장애와 장애인을 부적절하게 표현한 사례들을 유형화했다. 그리고 이 같은 표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수정해야 하는지 간략하게 설명하였다.

1. 장애인을 동정/감동의 원천으로 묘사하는 표현

‘한국의 스티븐 호킹’ 이상목 교수 <국민 11. 4. 12(21면)>, <중앙 11. 4. 29(31면)>

‘연세대 호킹’ 신형진 씨 <국민 11. 4. 22(17면)>, <서울 11. 4. 22(27면)>, <조선 11. 4. 22(A27면)>, <한겨레 11. 4. 22(10면)>

빵을 팔기 위해 장애인을 고용하는 게 아니라 장애인 고용을 하기 위해 빵을 판다. <한겨레 12. 4. 18 경제(19면)>

위 두 기사는 훌륭한 과학도인 이상목 교수와 신형진 씨를 유지한 방식으로 과장한다. 스티븐 호킹과 이 두 사람은 장애인이라는 점 말고도 별다른 공통점이 없는데 언론들이 상투적으로 이런 표현을 사용한다. 굳이 ‘한국의 스티븐 호킹’이라는 무리한 표현 대신 ‘장애인 과학자’ 또는 ‘장애인 과학연구자’라는 평범한 용어를 사용하는 게 오히려 더 진실하게 보인다. 세 번째 기사는 장애인 고용을 강조한 표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장애인 고용을 특별한 존재로 바라보는 시각이 드러내 보이는 표현법이다.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노동 잠재력이 있고 맞춤형 업종이 있는데 ‘닥치고’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고 억지스럽게 주장한다.

루이스의 우승은 그야말로 인간승리의 드라마다. 8세에 골프채를 잡은 루이스는 11세 때 허리뼈가 휘는 척추측만증을 앓아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무려 7년 반이나 하루 18시간 이상 척추교정기를 끼고 생활했다. <경향 11. 4. 5(30면)>

(자원봉사자) 박씨는 한자 공부를 하는 (시각장애인) 이씨에게서 놀라운 열정과 도전 정신을 발견했고, 너무 감동한 나머지 이씨에게 자신의 안구 기증을 제의했다. <문화 11. 4. 20(35면)>

이씨가 기부를 결심하게 된 것은 자신이 청소년기에 사고로 장애를 입은 후 겪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불굴의 의지로 극복한 과정을 떠올렸기 때문이다. <한국 12. 4. 24(11면)>

‘인간 승리의 드라마’, ‘너무 감동한’ ‘불굴의 의지로 극복한’, ‘놀라운 열정과 도전정신’ 같은 위 표현법들은 너무 상투적이면서도 과장된 표현이다. 극히 일부 성공한 장애인을 이렇게 과장하여 표현하면 의도하지 않게 장애의 고통을 지나치게 부각시키는 역효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아울러 성공하지 못한 대다수 장애인들에게는 이런 표현이 개인적 성공에 대한 사회적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희아 씨는 선천성 사지기형 장애를 갖고 있다. 손가락이 양손에 두 개 씩이고, 허벅지 아래로는 다리가 없다. 그러나 그의 손가락이 연주하는 피아노 소리는 사람들에게 세상 살맛나는 위로와 희망을 선사한다. <일보 11. 4. 20(2)>

많은 장애인들이 제가 마라톤을 완주하는 모습을 보고, ‘앞이 안 보이는 저 사람도 마라톤을 하는데, 나도 하면 되겠구나’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졌으면 하는 게 저의 작은 바람이죠.” <문화 11. 4. 20(35면)>

“영규 캐릭터는 제가 오랫동안 봐 온 주변 인물에서 빌려 왔어요. 바보스럽지만 선량한 이 인물을 통해 작가인 저를 포함해 많은 분들이 이기적인 자신을 돌아봤으면 해요.” <문화 11. 4. 13(28면)>

장애인은 ‘위로와 희망을 선사한다’, 장애인을 통해 ‘이기적인 자신을 돌아봤으면 한다’, 장애인도 하는데 ‘나도 하면 되겠구나’ 같은 위 표현들은 마치 장애인의 존재 가치를 더 높여 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장애인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과 달리 다른 무엇을 위해 또는 다른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과 위안을 주기 위한 존재가 아니다. 모든 사람은 물론 타인을 배려하고 가능하면

타인을 위한 삶을 살수도 있지만 어디까지나 개인의 완성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장애인도 예외가 아니다. 장애인을 다른 무엇을 위한 존재로 표현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

2. 장애 극복과 재활을 강조하는 표현

미국에서 열린 TED라는 행사에서 저처럼 걷지 못하던 어맨다라는 여자가 일어서는 모습이었지요. ... 로봇 같은 뼈를 입은 어맨다가 휠체어에서 일어나 사람들 앞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엄마는 숨죽여 우시더라 고요. 그러고선 “수민아. 엄마가 꼭 돈 많이 벌어서 저거 사줄게”라고 했어요. 저 로봇다리가 얼른 싸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서울신문 11. 4. 6 사회(10면)>

“저 걷고 싶어요. 혼자 힘으로 걸어다니면서 더 많은 세상을 보고 싶어요.” 2010년 11월 어느 날 서정우(28) 다소미집 생활재활교사의 꿈 속에 나타난 김준열(23)씨가 한 말이다. <한겨레신문 12. 4. 16 사회(14면)>

위 두 편의 기사 모두 신체적 장애인이라도 비장애인처럼 걸어서 다녀야 한다는 사고를 은박지르듯이 표현한다. 더구나 위 기사들은 모두 추정에 근거하고 있다. 첫 번째 기사는 기자가 ‘수민’이라는 가상의 어린이가 되어 쓴 글이고, 두 번째 기사는 재활교사의 꿈에 근거한 것이다. 이처럼 당사자들의 현실 인식과 완전히 동떨어진 ‘상상 속’ 기사는 장애의 부정적 이미지를 강조한다.

어릴 때 장애를 제때 재활·치료하지 않으면 평생 남에게 의지하게 되지만 일찍 재활을 받으면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다. <한국 12. 4. 24(11면)>

박마루 씨는 두 살 때 앓은 소아마비로 목발을 짚게 됐지만 이를 굳건하게 극복했다. 장애를 이겨낸 건 물론이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화합을 도모하면서 방송인, 대학교수, 가수, 강사 등 맹활약하고 있다. <한국 13. 4. 18(28면)>

위 한국일보의 기사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장애인이 ‘일찍 재활을 받으면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산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반대로, 장애인의 삶의 질은 조기 재활에 달린 게 아니라 이들을 둘러싼 환경과 태도라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는 무수히 많다. 재활은 장애인들의 삶의 일부에 영향을 줄 뿐 그것이 전부일 리가 없다. 그럼에도 기사는 마치 재활이 장애인의 삶 전체를 결정짓는 것인 양 오도하고 있다. 그리고 박마루 씨에 관한 기사에서 ‘소아마비로 목발을 짚게 됐지만 이를 굳건하게 극복했다’는 무슨 의미인가? 장애를 극복했다는 것이 정확하게 비장애인이 되었다는 말인가, 비장애인처럼 대우받는다는 말인가? 박마루 씨가 장애인이 아니었다면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박마루 씨는 자신의 장애를 극복했기 때문이 아니라 어찌한 그 장애 ‘덕분에’ 더 성공한 사람일지도 모른다. (박마루 씨는 2014년 6월 지방선거에서 장애인 몫으로 새누리당 소속 서울시 비례대표가 되었다.)

3. 사람이 아니라 장애와 보장구에 초점을 맞춘 표현

김종필 전 자민련 총재가 10일 오전 서울 남산공원에서 수행원의 도움을 받으며 휠체어에 의지해 산책을 하고 있다. <경향 11. 4. 11(8면)>

뇌병변 1급 장애로 휠체어 생활 <한겨레 11. 4. 27(32)>

휠체어 장애인 동행 취재 <한국 11. 4. 20(9면)>

차인홍(54) 교수는 '휠체어의 지휘자'로 불린다. <조선 12. 4. 10(A28)>

소아마비 문인 이상문씨 <경향 11. 4. 23(21면)>

휠체어 바이올린 40년 ... <중앙 13. 4. 20(8면)>

‘휠체어에 의지한’, ‘휠체어 장애인’, ‘휠체어 생활’ 같은 위 기사의 표현들은 보조도구에 불과한 휠체어를 부각시키고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인 장애인을 오히려 종속적인 지위에 둔다. 장애인은 휠체어에 ‘의지’하는 비주체적 인간이 아니라 휠체어를 ‘사용’하는 주체적인 인간이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 게 최선이고 굳이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휠체어를 사용’, ‘휠체어 사용자’ ‘휠체어를 사용하는 생활’로 순화하는 것이 마땅하다. 또 ‘소아마비 문인’ 같은 표현 역시 사용하지 않는 게 최선이고 굳이 사용하려면

‘소아마비 장애가 있는 문인’으로 순화시키는 게 좋다. ‘휠체어 바이올린’은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다.

4. 장애를 비하하는 표현

손 씨는 청각장애를 앓고 있는 둘째 형을 따라 ... <국민 11. 4. 20(27면)>

자폐증을 앓고 있는 스무 살 청년 초원이 <문화 11. 4. 20(34면)>

지적장애와 자폐증을 앓는 아이들은 계속 늘어나고 <한겨레 11. 4. 4(11면)>

위 사례에서 보는 ‘청각장애를 앓다’, ‘자폐증을 앓다’, ‘지적장애를 앓다’ 같은 표현은 장애와 질병을 구분하지 못한데서 비롯된다. 컷병을 앓을 수는 있지만 청각장애를 앓을 수는 없고 지적장애는 질병도 아닌데 앓는다고 한다. 장애인을 환자와 구분하지 않는 셈인데, 그럴 경우 이 사회는 장애인들에게 ‘병자 역할(sick role)’을 강요할 수 있다. ‘~장애를 앓다’는 표현은 모두 ‘~장애가 있다’로 바꾸어야 한다.

정신질환자들의 반사회성과 공격성 등을 제어할 수 있는 적절한 치료와 보호가 제공되지 않는 것이 정신질환 피의자 증가의 원인 <서울 11. 4. 25(8면)>

대한장애인아이스하키협회 조윤호 감사는 “선수들 대부분은 정상이었다가 사고를 당해 장애인이 됐다”며 ... <중앙 12. 4. 3(26면)>

정신지체는 정상 아이들과 같은 방향으로 발달하되 발달 속도가 느리지만 범발달장애는 발달 속도는 물론 방향성도 정상 아이들과 다르다. <서울 12. 4. 16(25면)>

정신장애인들이 반사회성과 공격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정신장애인의 범죄율은 전체 범죄율보다 낮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 또 ‘장애인’과 ‘정상인’을 대비시켜 표현하는데, 그렇다면 장애인은 ‘비정상인’이란 말인가?

강제노역에 시달려온 지적장애인에 대한 심리진단 결과 이들의 사회연령은 9.25세, 사회지수는 19.8세 정도로 ... <국민 12. 4. 10(8면)>

정신지체가 있는 17세 청소년은 행동이 3~4세 아이와 비슷해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때를 쓴다든지, 과자를 주어야만 단순한 심부름을 하며, 구사하는 단어나 문장이 매우 단순하다. <서울 12. 4. 16(25면)>

사회적응연령이 10세 미만인 D(47)씨는 19세 때부터 30년 가까이 강제노역을 하고도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세계 12. 4. 10(10면)>

지적/자폐성 장애인을 아동으로 묘사하는 것은 혼란 일이다. 가령, 지적장애를 가진 성인을 ‘사회연령은 9.25세, 사회지수는 19.8세’ ‘7세 정신연령’ 등으로 표현한다. 그래서 ‘17세 청소년은 행동이 3~4세 아이와 비슷해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때를 쓴다든지, 과자를 주어야만 단순한 심부름을 하며, 구사하는 단어나 문장이 매우 단순하다’며 완전히 어린 아이 취급을 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의학적, 과학적 근거가 부정확할 뿐 아니라 사회적, 인간적으로는 더욱 터무니없다. 가령, 3세, 5세, 7세 정신연령 수준을 표준화하는 것도 과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인간을 정신의 연령과 신체의 연령으로 나누는 것은 비인간적이다.

5. 장애를 지나치게 상세하게 설명하거나 부각시키는 경우

소아당뇨, 실명, 결핵, 만성신부전... 김정미 부산 해운대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35·여)의 인생엔 질병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시각장애 1급, 신장장애 2급인 장애인. 김 소장의 아버지는 베트남전에 참전했다. 그에게 생긴 고엽제 후유증은 딸에게 유전됐다. 아버지는 늘 다리 신경이 아프다고 했다.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똑같은 증상을 김 소장도 앓았다. ... 김 소장은 11세 때 소아당뇨를 진단받았다. 설상가상으로 24세 때 시력이 갑자기 악화됐다. 순식간에 실명에 이르렀다. 시각장애 1급. 충격을 받아 우울증에 걸렸다. 6개월간 방에만 틀어박혀서 외출하지 않았다. <동아 13. 4. 18 사회(14면)>

이 기사는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국무총리표창을 받는 유능한 장애인에 관한 기사다.

그러면 당연히 주인공의 사회생활과 공적이 기사의 중심이 되어야 함에도 기자는 개인의 병력에 기사의 2/3을 할애한다. 장애인을 극단적으로 ‘의료모형’ 관점에서 묘사하는 기사라고 할 수 있다.

신형진 씨는 생후 7개월부터 온몸의 근육이 굳는 희소질환 ‘척추성 근위축증’과 싸워왔다. 160cm의 키에 몸무게가 24kg인 신씨는 현재 눈과 입만 움직일 수 있고, 휠체어에 누워 생활해야 한다. 온몸이 굳어 숨쉬기조차 힘들지만, 소년은 자신의 운명을 헤쳐나갔다. <한겨레 2011. 4. 20(10면)>

ㄱ군은 ‘척추측만증’, ‘선천성다발관절만곡증’, ‘선천성소변역류’ 등의 장애를 갖고 태어난 1급 지체장애인이다. 말하기, 듣기, 보기 등의 인지능력과 사고와 관련된 지적능력엔 문제가 없지만 몸이 불편해 평생을 휠체어 위에서 살았다. <경향 13. 4. 17(14면)>

위 기사들 역시 장애인의 손상과 질병을 과도할 정도로 상세하게 표현한다. 의학에 관한 기사도 아닌데 굳이 이렇게 장애인의 몸 상태에 대한 페티시즘(fetishism)적 표현은 불필요할 뿐 아니라 개인의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기도 하다.

6. 장애인을 무기력함, 불행, 절망, 수치의 정조로 묘사하는 표현

성한 사람들은 봄이면 산이나 들에 놀러 다닐 수 있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자원봉사자의 도움 없이는 아무 곳에도 갈 수 없다. <국민 13. 4. 18(31면)>

이 의원은 지체장애 2급이다. 남의 도움 없이는 몸도 가누지 못한다. 그런 그가 ... 108배를 시작한 데 이어 단식투쟁까지 돌입했다.. <경향 11. 4. 20(3면)>

위 기사들은 장애인은 다른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데도 갈 수 없는 것처럼 표현한다. 요즘은 자원봉사자가 없어도 활동보조인과 함께 중증 장애인들도 얼마든지 외출을 할 수 있다. 특히, 경향신문의 기사에 등장하는 이상호 서울시의

원의 경우 실제로는 목발 없이도 스스로 걸을 수 있을 정도의 장애인인데도 기자는 ‘남의 도움 없이는 몸도 가누지 못한다’고 손상을 지나치게 부풀려서 보도한다.

축망 받던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학생이 한 순간에 장애인으로 바뀌던 순간이었다. <중앙 11. 4. 19(32면)>

조씨는 스물 여섯 나이에 갑자기 덮친 병마(뇌하수체 종양)로 시력을 거의 잃었다. 집에만 틀어박혀 절망감에 허덕이다가 ... <한국 11. 4. 5(36)>

... 결국 자폐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당시 부모님께선 저 때문에 평생 쏟을 눈물을 한꺼번에 다 쏟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한국 12. 4. 16(27면)>

‘한 순간에 장애인으로 바뀌던 순간’, ‘집에만 틀어박혀 절망감에 허덕이다’, ‘평생 쏟을 눈물을 한꺼번에 다 쏟았다’ 같은 표현은 장애를 불행, 절망, 슬픔의 정조로 묘사한 것이다. 물론, 기자가 상투적으로 이 같은 정조를 부각시키면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거부감과 공포심을 조장할 수 있다.

7. 장애를 선정적으로 표현하는 경우

장애아·소년소녀가장, 노인 성노리개로 전락 <세계 13. 4. 18(11면)>

지적장애 그녀에겐 ‘집승’이었다. <서울 13. 4. 23(10)>

지적장애인을 ‘노예처럼’ 30여년 간 등골 뻘 일가족 <한겨레 12. 4. 4(12면)>

동영상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자기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아이, 먹은 것을 다 토해낸 뒤 그걸 다시 훔아먹는 아이, 남의 말을 앵무새처럼 따라하는 아이. <조선 11. 4. 30(B4~5)>

위 사례들은 모두 장애인이 당한 사건을 과도하게 선정적으로 표현한 것들이다. 장애 여성에 대한 성폭력 사건을 ‘성노리게’, ‘짐승’으로, 장애인에 대한 노동 착취를 ‘노예생활’, ‘등골 뺨’ 등으로 표현함으로써 상황을 과장하거나 선정적으로 묘사한다. 또 자폐성 장애 어린이의 이상 행동을 과도하게 상세하게 묘사하여 독자들의 장애인 혐오감을 조장한다.

VII.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언론의 장애인 보도 형태와 그 표현법은 아직도 개선될 부분들이 많다. 언론의 사회적 과급력을 고려할 때 장애-친화적 언론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언론 매체와 그 수요자인 장애인은 물론이고 우리 사회 일반이 참여해야 할 과제이다.

우선, 언론사는 장애인 관련 보도의 원칙을 수립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주체적인 노력을 할 필요하다. 가령, 영국 BBC 등 많은 선진국 언론들이 채택하고 있는 ‘장애인 관련 보도 매뉴얼’을 제작하고 이를 공개해야 한다. 또 이 매뉴얼을 전 직원들에게 공유시키고 내부 모니터링 기구를 두어 보도 내용을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장애인 관련 기사를 보도할 때 성공한 인물이나 특이한 개인사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장애를 양산하는 이 사회의 구조를 비판적으로 파고드는 언론 정신과 태도가 필요하다.

둘째, 장애인 사회는 언론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부정적이거나 왜곡된 장애 관련 기사에 대한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 현재 장애인 사회에서는 한국장애인인권포럼과 장애우권의 문제연구소,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정도가 언론 모니터링을 하는 수준이다. 예산과 시간이 많이 드는 사업임에도 지금까지 이들 단체들은 언론 모니터링을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다. 다만, 아직은 단편적인 모니터링에 머물러 있다. 장기 계획에 따라 구조화된 조사 지표를 가지고 지금보다 더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이 되어야 한다.

셋째, 우리 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와 인식을 근본에서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다. 언론의 장애인 보도 태도는 언어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언어 문제는 결국 사회의 문제 연장선에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부락해방동맹이 1975년 9월에 발표한 ‘차별어 문제에 관한 견해’에서 주장하듯이, “언어는 사회가 만들어 낸 것이고 차별어는 차별사회

가 만들어 내고 유지해 오고 있다. 따라서 일본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끊임없이 반문하면서 차별사회의 변혁과 인민 의식의 변혁이 실현되어가는 가운데 차별어는 해소될 것이다.”¹⁰⁾ 아울러 우리 사회는 장애와 장애인을 차이, 다양성, 다문화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 모든 개인들의 가치관, 외모, 꿈, 생활 조건은 저마다 다 다르다. 장애인들 역시 한 개인으로서 또 시민으로서 동등한 존재이지만 삶의 양식은 모두 다른 존재다. 지극히 평범하고 당연한 사실을 자연스럽게 인식하는 것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는 출발점이다.

10) 임영철 외(2008), 사회적 의사소통 연구 : 장애인 차별 언어의 양태에 관한 연구, 국립국어원.